

전기요금·전남 의대·반도체·주청사 문제 공방

6·3 지방선거 D-77

민주당통합특별시장 경선 토론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 격돌
“전기요금 공약 실현 어려워”
반도체공장 입지 놓고 의견 엇갈려
‘순천 의대’姜주장에 세 후보 이견
朱 “주청사 전남” 나머지 후보 신중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들이 17일 광주MBC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전기요금 현실성,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 주청사 위치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2·3·4면

이날 A조 토론회에는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 후보(경선 기호 순)가 참여했으며 모두 발언과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1호 공약과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 에너지 자산지소 전략 등을 제시한 뒤 주도권 토론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김영록 후보는 민형배 후보의 ‘산업용 전기 100원’ 구상에 대해 “현재 kWh당 180원인데 100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전력공사 설립 문제도 제2의 한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태양광 70%, 에너지저장



경선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토론회가 17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려 손을 맞잡은 A조 4명의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6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4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1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기호 2번 강기정 광주시장. /조영권 기자

시스템(ESS) 10%, 계통 보완 전력 20%를 조합하면 원가를 88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부대비용을 더해 100원 선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민 후보는 전력공사 구상과 관련,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기존 공공기관 기능을 통합·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기정 후보는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통합대학 의대는 순천대, 대학본부는

목포, 병원은 동·서부권에 각각 두는 구상을 언급하고 다른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철현 후보는 “전남 의대 문제는 대통령도 약속했으나 통합 전 약속한 대로 설립해야 한다”며 “동·서부권 상생 차원에서 50명씩 정원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 좋다”고 의견을 달리 했다.

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도 “이 문제는 대학의 학사 행정이다.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며 “후보들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거론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강 후보는 “진짜 후보지를 제시했어야 했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된다. 학사 행정이라고 말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

졌다. 강 후보는 반도체 생산공장을 순천에 두는 구상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물으며 김 후보가 앞서 제시한 ‘서부권 범용 메모리 생산 기지, 동부권 HBM 등 첨단 반도체 양산 기지로 특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주 후보는 “(반도체 생산공장을 동부권에 두는 구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기지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 후보는 “서부권 역시 전기와 용수 여건이 괜찮다”며 “김 후보의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다. 주 후보는 “통합특별시장 주청사를 전남에 뒀다 한다. 시·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각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민 후보는 “시장 근무지가 주청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되 어느 곳을 주청사로 정할지는 선거 이후 시·도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3곳이 모두 주청사다. 법적 대표 주소지 문제와 시의회 청사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하겠다”며 “생각해 둔 복안이 있지만 지금 말하진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 후보는 강 후보에게도 주청사 관련, “광주 중심의 구상이 전남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청사는 전남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양시원 기자

민주 5개 구청장 대진 완성...결선 도입

광주시당, 서구 경선 방식·일정 확정

동·서·광산구 24·26일 ‘국민참여경선’

남·북구 24·25일 예비경선 후 본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서구청장 후보 선출 경선 방식과 참여 후보를 확정하면서 광주 5개 기초단체장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 운영위원회는 17일 서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확정했다. 경선 참여자는 김영남·김이강·조승환 후보다.

앞서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과 후보자를 결정했으며 상무위원회가 관련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동구청장·광산구청장과 동일하게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24·26일 권리당원 ARS 조사(24·25일)와 안심번호 여론조사(26일)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남구청장·북구청장 경선은 24·25일 100%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방식의 1차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본경선과 결선 일정은 현재 제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동구청장 경선에서는 노희용·임택·진선기 후보가,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는 박병규·박수기·차승태 후보가 맞붙는다.

남구청장 경선은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후보가 5파전을 벌이게 됐다.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북구청장 경선에는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오주섭·정다운·정달성·조호근 후보가 참여한다.

광주시당은 이날 후보자 설명회에 이어 18일부터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후보 등록이 마무

리되면 19·23일 5일 간 경선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는 21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합동연설회도 열린다. /변은진 기자

Today	
웨딩홀 ‘임행투어’ 놓고 갑론을박	6면
음주문화 변화...서민술집 사라진다	12면
KIA 김호령 6경기 연속 안타	16면

불후의 명곡 여자 최다 우승

SONG BATTLE OF THE LEGENDS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정통하 x ALI 26년 3월 22일 18시

불후의 명곡 남자 최다 우승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티나엔터테인먼트
티켓가격 R석 132,000원 | S석 110,000원
판매처 티켓링크 | 놀 티켓 1544-1555